

한-칠레 FTA 6주년 평가

2010년 4월 1일

목차

- I. 한-칠레 FTA 경과, 의의 및 주요내용
- II. 한-칠레 FTA 발효 6년간 교역동향
- III. 칠레 수입 시장의 경쟁 현황
- IV. 2010년 수출 조건 개선 품목
- V. 對칠레 수출의 생산고용유발효과
- VI. 한-칠레 투자동향 및 인적교류
- VII. 한-칠레 FTA 6년 종합평가
- VIII. 향후 전망 및 대응과제

[요 약]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2010년 4월 1일 부로 6주년을 맞이했다. 많은 우려 속에서 발효되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한-칠레 FTA는 성공적인 FTA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6년간 對칠레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22.5%에 달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對세계 교역 증가율 10.7%를 두 배 이상 상회했다. 또한 한-칠레 FTA가 국내 생산 및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對칠레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액은 2003년 13.2억 달러에서 2009년 44.9억 달러로 3.4배 증가했고, 취업자유발인원은 6,041명에서 23,708명으로 3.9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발효 6년차인 2009년 글로벌 경기 침체로 對칠레 수출이 전년대비 약 25% 이상 급감하며 큰 낙폭을 보였지만, 이는 칠레 수입 시장 자체의 급격한 규모 축소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같은 기간 칠레 수입 시장의 한국產 점유율은 5.62%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0.02%p 소폭 상승했다.

반면에 경쟁국과 칠레의 FTA 추진에 따라, 한-칠레 FTA로 인한 시장 선점효과는 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 수입 시장의 한국產 점유율은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7년 최고치인 7.23%에 달했으나 2006년 10월 중-칠레 FTA, 2007년 9월 일-칠레 FTA 등 경쟁국의 FTA 발효로 점유율이 5.62%까지 하락하고 말았다.

한편, 2010년 칠레는 290개 품목을 새롭게 개방하게 된다. 이들 품목은 지난 6년간 기준 관세를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관세 인하를 시작하는 품목이다. 이 가운데 그 동안 관세 인하 없이도 對칠레 수출 실적이 활발했던 타이어, 섬유제품, 철강판, 가열 난방기, 화학기계, 밸브 등 일반 기계류 제품의 수출 증가가 전망된다.

이와 같은 추가적 관세인하 외에도 지난 2월말 칠레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도 향후 對칠레 교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칠레產 와인, 펄프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나 동(銅) 수입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응을 위해 업계는 2010년부터 일부 품목의 추가적인 관세인하 혜택이 활용가능한지의 여부와 지진으로 인한 對칠레 교역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이행위원회를 통해 경쟁국 대비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의 양허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한-칠레 FTA를 바탕으로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MERCOSUR 등과의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 입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한-칠레 FTA 경과, 의의 및 주요내용

가. 추진 경과

- 한-칠레 FTA는 1999년 12월 협상이 개시되어 협상 개시 3년여만인 2002년 10월 타결됐으며, 2003년 2월 공식 서명되어 2004년 4월 1일 발효

< 한-칠레 FTA 주요 추진 경과 >

일 자	추진 경과
1999. 12. 14~17	제1차 협상 개시 (산티아고)
2000. 2. 29~3. 3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2000. 5. 16~19	제3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0. 12. 12~15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2002. 8. 20~23	제5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2. 10. 18~20	제6차 협상 개최 (제네바)
2002. 10. 25	협상 타결 발표 (서울 및 산티아고)
2003. 2. 15	정식 서명 (서울)
2004. 4. 1	한-칠레 FTA 발효
2004. 4.~2010. 4.	한-칠레 FTA 이행 점검을 위한 자유무역위원회 6차례 개최

나. 한-칠레 FTA의 의의

□ 우리나라 최초의 FTA

- 다자주의 중심의 우리나라 통상 정책에서, 지역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발점이 됨

□ 아시아 국가가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진출 거점으로 활용

□ 우리나라 협상 능력 제고 및 노하우 축적

- 발효까지 4년여의 기간 동안 값진 경험을 축적하며 정부, 연구기관 등이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게 됨

□ FTA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습효과

- FTA에 대한 對국민 인식 제고와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는 계기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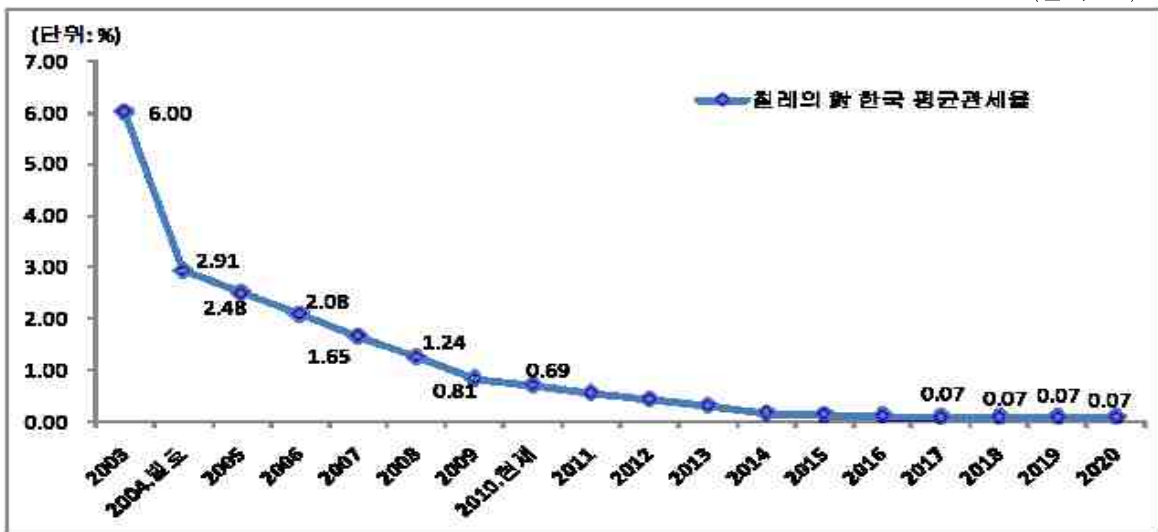
다. 관세 인하 및 자유화 진행 수준

□ 발효 이전인 2003년 칠레의 對한국 평균 관세율은 6.00%였으나 발효 이후 6년 동안 5.31%p 감소하여 2010년 현재 평균 관세율은 0.69%로 거의 0% 수준에 다달했음

- 한-칠레 FTA를 통해 칠레의 對한국 평균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 0.07%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며, 이로써 한국의 칠레 시장 공략에 관세 장벽은 의미가 없어지게 됨

< 칠레의 對한국 평균 관세율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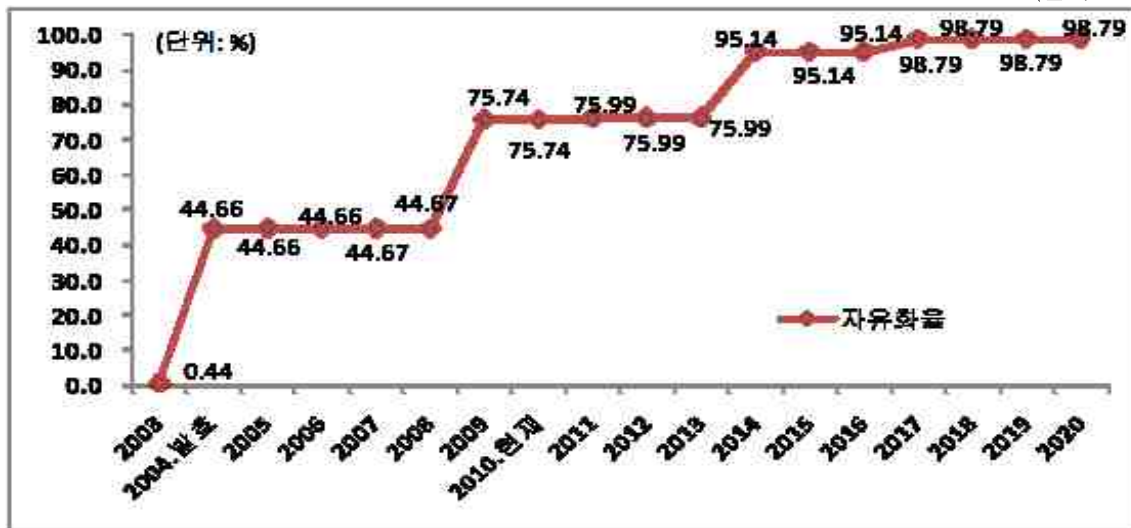
	2003 (A)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B)	인하폭 (B)-(A)
칠레의 對한국 평균관세율	6.00	2.91	2.48	2.08	1.65	1.24	0.81	0.69	5.31

□ 발효전 자유화율(관세가 0%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0.44% 수준에 그쳤으나 발효 직후 3,500여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44.66%까지 증가했고, 발효 6년차인 2009년 2,400여개 품목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어 2010년 현재 자유화율은 75.74%에 달함

- 발효 전 35개에 그쳤던 무관세 품목은 현재 6,014개 품목까지 늘어나 자유화율은 발효 이전보다 무려 75.30%나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産 제품이 칠레 시장에 무관세로 접근할 수 있게 됨

< 칠레의 對한국 자유화율 >

(단위: %)



	2003 (A)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B)	증가폭 (B)-(A)
자유화율	0.44	44.66	44.66	44.66	44.67	44.67	75.74	75.74	75.30

* 주: 자유화율은 칠레 전체 품목 가운데 관세가 0%가 된 품목의 비중을 뜻함

2. 한-칠레 FTA 발효 6년간 교역동향

가. 교역동향

- 한-칠레 FTA 발효(2004년 4월 1일 발효)이후 지난 6년간 양국 간 교역은 매년 평균 22.5% 증가하여 발효 6년차 교역액은 발효 전(2003년)에 비해 3.4배 증가
 - 2003년 5.2억 달러를 기록했던 對칠레 수출은 2009년 22.3억 달러로 무려 4.3배 증가했으며, 동 기간 수입은 10.6억 달러에서 31억 달러로 3배 증가
- 발효 6년차인 2009년 경기 침체로 인해 對칠레 교역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효 이후 對칠레 교역은 지난 6년간 연평균 22.5% 증가하며 동 기간 對세계 교역 증가율 10.7%를 큰 폭으로 상회
 - 2008년까지의 5년간 對칠레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35.4%에 달했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교역 규모 감소로 연평균 증가율이 12.9%p 이상 감소한 22.5%를 기록
 - 그럼에도 불구하고 對칠레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동 기간 對세계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인 18.1%(04-08년)와 10.7%(04-09년)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對칠레 교역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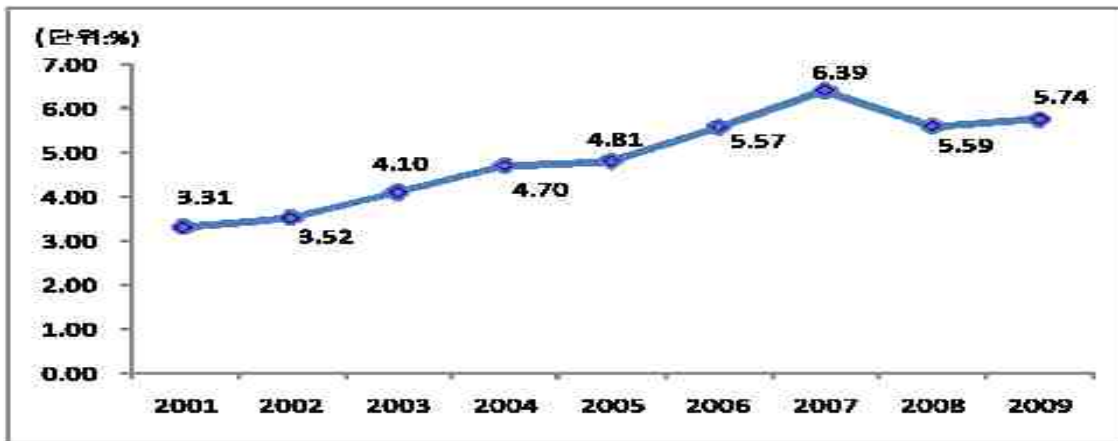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2월)	연평균 증가율	
									6년간 (04-09)	5년간 (04-08)
수출	517 (13.9)	708 (36.9)	1,151 (62.5)	1,566 (36.1)	3,115 (98.9)	3,032 (-2.7)	2,229 (-26.5)	495 (88.8)	27.6	42.4
동 기간 對세계 수출 증가율									11.1	16.8
수입	1,058 (40.3)	1,934 (82.8)	2,279 (17.9)	3,813 (67.3)	4,184 (9.7)	4,127 (-1.3)	3,103 (-24.8)	738 (112.1)	19.6	31.3
동 기간 對세계 수입 증가율									10.4	19.5
교역	1,575 (30.4)	2,642 (67.7)	3,430 (29.8)	5,379 (56.8)	7,299 (35.7)	7,159 (-1.9)	5,332 (-25.5)	1,233 (101.8)	22.5	35.4
동 기간 對세계 교역 증가율									10.7	18.1
수지	-541	-1,225	-1,128	-2,247	-1,069	-1,096	-874	-242	-	-
<증감액>	<-241>	<-684>	<97>	<-1,119>	<1,178>	<-27>	<222>	-	-	-

* 자료: KITA.net

- 2009년 對칠레 교역은 전년대비 -25.5%를 기록하며 동 기간 對세계 교역 증가율 -19.9%에 비해 큰 낙폭을 보였지만, 이는 칠레의 對세계 교역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동 기간 칠레의 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74%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

〈 對칠레 교역에서 한국 비중 추이 〉



* 자료: WTA

- 對칠레 수출은 협정 발효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 2009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10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對칠레 수출은 FTA 발효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오다, 2008년, 2009년 경기 침체의 영향하에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10년 들어서는 對세계 수출 증가세를 큰 폭으로 상회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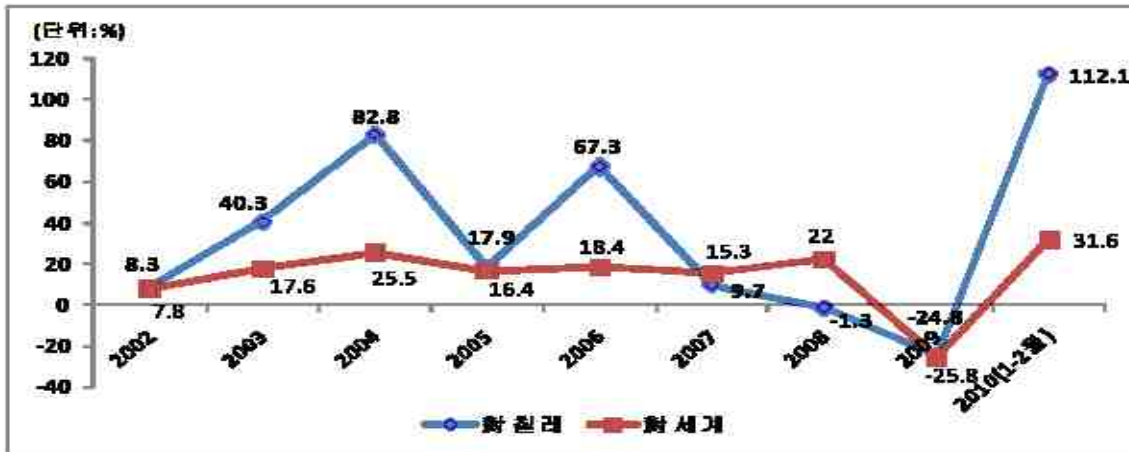
〈 對칠레 수출 증가율 추이 〉



* 자료: KITA.net

- 對칠레 수입은 FTA 발효 이후 구리 등의 국제원자재 가격 등락에 따라 급증과 둔화를 거듭해 왔으며 2008년, 2009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0년 들어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음

< 對칠레 수입 증가율 추이 >



* 자료: KITA.net

- 對칠레 무역수지 적자는 협정 발효 이후 매년 확대되어 2006년 적자규모가 22.5억 달러에 달했으나 이후 절반이상으로 축소되며 무역수지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음

- 對칠레 교역은 공산품을 수출하고, 동(銅) 등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형태를 띄고 있으며, 동관련 수입의 對칠레 의존도(약 60~70%)가 높아 적자형 구조를 지님
- FTA 발효 이후 2006년 22.5억 달러로 적자규모가 최대치에 달했으나 2007년 -10.7억 달러, 2008년 -11억 달러, 2009년 -8.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적자폭이 절반 이상으로 축소되면서 무역수지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음

< 동 제품의 對칠레 의존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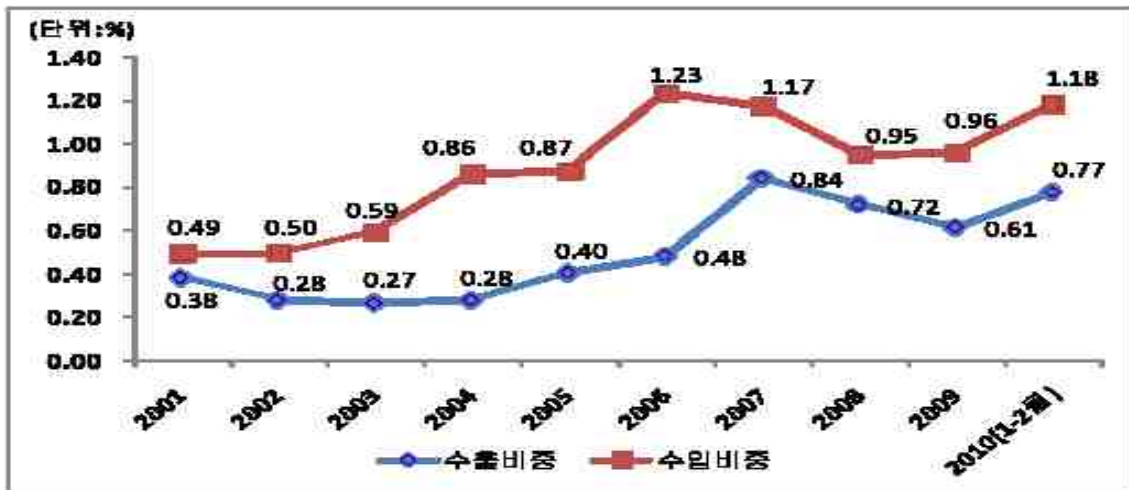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2월)
對칠레 수입의 동 제품 비중	72.6	69.0	74.5	65.1	67.1	63.5	66.4	63.8	64.1
동 제품 수입의 對칠레 비중	83.9	85.8	122.5	85.6	77.7	79.4	78.0	60.1	61.3

* 주: 동 제품은 동괴와 동광의 합계

* 자료: KITA.net

- 한국의 對세계 수출입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수입은 2006년, 수출은 2007년을 고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2010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됨

〈 한국 수출입에서 對칠레 수출입 비중 〉



* 자료: KITA.net

- 한편, FTA 발효 이후 칠레의 對세계 수출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 전체적으로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을 고점으로 감소한 이후 횡보세를 보이고 있음

〈 칠레 수출입에서 對한국 수출입 비중 〉



* 주: 對한국 수입 비중 볼드 표시

* 자료: WTA

나. 對칠레 품목별 수출 동향

-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동 기간 對세계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경유, 승용차, 철강관, 자동차 부품 등은 對칠레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2008년, 2009년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10년 들어 빠른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합성수지의 FTA 발효후 5년간 對칠레 수출 증가율은 동기간 對세계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며 호조를 보였으나, 2009년 수출이 전년도 대비 절반으로 축소되어 수출 규모가 2004년 수준으로 퇴보함
 - 무선전화기는 발효 직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칠레에서 이동통신방식을 CDMA에서 GSM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CDMA 방식 위주의 우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타이어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발효 이후 6년간 관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에 속해 있어 FTA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음에도 지난 6년간 수출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향후 관세 철폐 혜택으로 추가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됨
 - 칼라 TV는 중-칠레 FTA, 일-칠레 FTA 발효로 인해 수출이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칠레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 수출을 3배 이상 확대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주요 품목의 對칠레 수출 〉

(단위: 천달러, %)

품목명 기준관세/양허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2월)	연평균 증가율	
									6년간 (04-09)	5년간 (04-08)
총계	517,187 (13.9)	708,287 (36.9)	1,151,001 (62.5)	1,566,131 (36.1)	3,115,103 (98.9)	3,031,843 (-2.7)	2,229,062 (-26.5)	465,364 (88.8)	27.6	42.4
동 기간 對세계 수출증가율									11.1	16.8

경유 6%/5년	81,624 (82.6)	66,522 (-18.5)	241,302 (262.7)	493,981 (104.7)	1,739,481 (252.1)	1,408,046 (-19.0)	634,311 (-54.9)	198,246 (114.1)	40.7	50.7
동기간 對세계 수출증가율									28.7	52.5
승용차 6%/즉시	116,889 (41.3)	189,798 (62.4)	270,810 (42.7)	376,749 (39.1)	517,363 (37.3)	525,418 (1.6)	493,847 (-6.0)	133,431 (273.0)	27.1	35.1
동 기간 對세계 수출증가율									4.2	12.3
합성수지 6%/즉시-10년	50,312 (41.1)	68,523 (36.2)	126,610 (84.8)	137,666 (8.7)	123,464 (-10.3)	138,106 (11.9)	67,012 (-51.5)	9,921 (6.9)	4.9	22.4
동 기간 對세계 수출증가율									13.3	19.0
철강판 6%/5~13년*	8,303 (-18.6)	11,111 (33.8)	13,515 (21.6)	33,732 (149.6)	43,492 (28.9)	72,305 (66.3)	28,833 (-60.1)	7,119 (54.8)	23.1	54.2
동 기간 對세계 수출증가율									12.8	22.3
무선전화기 6%/즉시	23,140 (-25.4)	57,196 (147.2)	91,850 (60.6)	93,873 (2.2)	84,260 (-10.2)	53,985 (-35.9)	46,125 (-14.6)	13,687 (33.6)	12.2	18.5
동 기간 對세계 수출증가율									5.0	10.3
자동차부품 6%/즉시-13년	21,106 (4.6)	24,847 (17.7)	28,561 (15.0)	31,314 (9.6)	35,852 (14.5)	40,294 (12.4)	33,885 (-15.9)	7,782 (62.4)	8.2	13.8
동 기간 對세계 수출증가율									18.5	27.0
타이어 6%/13년*	10,391 (13.2)	13,871 (33.5)	19,584 (41.2)	20,140 (2.8)	25,189 (25.1)	34,059 (35.2)	27,345 (-19.7)	5,441 (28.8)	17.5	26.8
동 기간 對세계 수출증가율									8.7	12.7
칼라TV 6%/즉시	7,249 (-48.6)	13,142 (81.3)	14,238 (8.4)	29,456 (106.9)	23,472 (-20.3)	11,286 (-51.9)	42,191 (273.8)	2,368 (46.6)	34.1	9.3
동 기간 對세계 수출증가율									0.6	10.3

* 주1: 13년 철폐는 발효 이후 6년간 관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7년에 걸쳐 관세 철폐

* 주2: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 양허유형, 수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KITA.net

다. 對칠레 품목별 수입 동향

□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동괴, 동광, 돼지고기, 포도주 등은 FTA 발효 전부터 수입이 큰 폭의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FTA 발효 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2009년 대부분 품목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

- 동괴, 동광 등 동(銅) 관련 제품은 2009년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효 이후 지난 6년간 연평균 2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임
- 칠레産 적포도주는 발효 이전인 2003년 국내 수입 시장 점유율(금액기준)이 7.2%에 그쳤으나, 발효 이후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 수입비중이 27.5%까지 증가하여 프랑스産에 이어 국내 수입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함

- 2003년 적포도주 수입 시장은 프랑스産이 54.7%를 차지했으나 FTA 발효 이후 칠레産이 프랑스 제품을 대체하면서 프랑스産의 수입 비중이 2009년 34.7%까지 감소
-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물량기준으로 칠레産이 프랑스産을 앞질렀으며, 이는 저렴한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칠레産 와인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임
- o 돼지고기는 2008년 다이옥신 검출로 수입이 급감한 바 있으나, 칠레産 돼지고기 공급업체인 아그로수퍼의 지속적인 국내 시장 공략으로 수입이 급감한 다른 품목과 달리 2009년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주요 품목의 對칠레 수입 〉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기준관세/ 양허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2월)	연평균 증가율	
									6년간 (04-09)	5년간 (04-08)
총계	1,057,723 (0.3)	1,933,548 (82.8)	2,279,175 (17.9)	3,812,945 (67.3)	4,183,829 (9.7)	4,127,354 (-1.3)	3,103,300 (-24.8)	737,761 (112.2)	19.6	31.3
동과 5%/7년	510,516 (19.7)	928,016 (81.8)	827,071 (-10.9)	1,189,763 (43.9)	1,381,745 (16.1)	1,486,019 (7.6)	1,388,882 (-6.5)	292,198 (183.2)	18.2	23.8
동광 1%/즉시	219,113 (81.7)	513,102 (34.2)	657,202 (28.1)	1,369,192 (108.3)	1,273,969 (-6.9)	1,254,562 (-1.5)	591,775 (-52.8)	180,492 (209.3)	18.0	41.8
돼지고기 26.2%/10년	30,237 (374.0)	54,725 (81.0)	80,627 (47.3)	83,557 (3.6)	119,469 (43.0)	89,508 (-25.1)	121,014 (35.2)	20,453 (31.2)	26.0	24.2
포도 45%/10년	13,656 (57.5)	13,133 (-3.8)	19,158 (45.9)	27,835 (45.3)	47,399 (70.3)	64,217 (35.5)	51,565 (-19.7)	6,253 (-1.0)	24.8	36.3
적포도주 15%/5년	2,366 (164.4)	6,810 (87.8)	10,251 (50.5)	13,395 (30.7)	23,179 (73.1)	26,943 (16.2)	21,817 (-19.0)	4,322 (6.1)	44.8	62.7
훈어 35%/10년	9,962 (75.3)	8,514 (-14.5)	8,484 (-0.3)	8,343 (-1.7)	10,110 (21.2)	7,818 (-22.7)	5,962 (-23.7)	889 (-15.1)	-8.2	-4.7
냉동연어 10%/5년	399 (-45.5)	2,462 (517.0)	5,770 (134.4)	23,216 (302.4)	24,846 (7.0)	28,219 (13.6)	26,356 (-6.6)	3,582 (43.0)	101.1	134.4
키위 45%/10년	1,758 (29.2)	2,885 (64.1)	7,996 (177.2)	12,255 (53.3)	9,946 (-18.8)	3,964 (-60.1)	6,626 (67.2)	0 -	24.7	17.7
목재류 0-8%/즉시	16,470 (-37.9)	28,548 (73.3)	18,033 (-36.8)	23,890 (32.5)	27,554 (15.3)	36,585 (32.8)	30,536 (-16.5)	10,548 (06.8)	10.8	17.3

* 주: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 양허유형, 수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KITA.net

□ FTA 이후 對칠레 수입액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은 동광 및 동괴를 포함한 광산물/비철금속으로 전체 수입증가의 78.6%를 차지했으며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증가는 미미했음

- 광산물/비철금속의 수입 증가 기여는 대부분 동(銅)관련 제품 수입으로 인한 것이며, 동괴와 동광은 각각 전체 수입 증가의 42.9%, 18.2%를 차지함
- 수입 급증이 우려되었던 농산물의 수입 증가 기여는 4.0%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적포도주를 제외한 순수 농산물의 수입 증가 기여는 3.0%에 그쳤음
- 농림축수산물 전체의 수입증가 기여도는 11.6%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단일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가장 큰 비중인 4.4%를 차지함

< 주요 품목의 對칠레 수입 증가액 및 기여도 >

(단위: 천달러, %)

	발효1년 (A)	발효2년 (B)	발효3년 (C)	발효4년 (D)	발효5년 (E)	발효6년 (F)	A+B+C+ D+E+F	증가기여도
농림축수산물	52,987	46,277	55,719	70,279	-10,555	22,342	237,049	11.6
농산물	4,685	17,766	19,637	28,412	16,728	-6,153	81,075	4.0
적포도주	4,444	3,441	3,144	9,784	3,764	-5,126	19,451	1.0
적포도주 제외 농산물	241	14,325	16,493	18,628	12,964	-1,027	61,624	3.0
과실류	626	11,966	14,567	18,035	11,443	-9,682	46,955	2.3
포도	-523	6,025	8,677	19,564	16,818	-12,652	37,909	1.9
키위	1,127	5,111	4,259	-2,309	-5,982	2,662	4,868	0.2
축산물	24,467	25,906	3,802	41,502	-33,715	30,685	92,647	4.5
돼지고기	24,488	25,902	2,930	35,912	-29,961	31,506	90,777	4.4
수산물	11,573	13,141	26,437	-3,463	-2,781	4,138	49,045	2.4
냉동연어	2,063	3,308	17,446	1,630	3,373	-1,863	25,957	1.3
홍어	-1,448	-30	-141	1,767	-2,292	-1,856	-4,000	-0.2
임산물	12,261	-10,536	5,842	3,829	9,213	-6,328	14,281	0.7
목재류	12,078	-10,515	5,857	3,664	9,031	-6,049	14,066	0.7
광산물/비철금속	816,787	216,247	1,390,495	208,103	-48,469	-975,645	1,607,518	78.6
동괴	417,500	-100,945	362,692	191,982	104,274	-97,137	878,366	42.9
동광	293,989	144,100	711,990	-95,223	-19,407	-662,787	372,662	18.2
공산품	447,149	-330	837,749	338,529	-140,236	-325,572	1,157,289	56.6
총수입	875,825	345,627	1,533,770	370,884	-56,475	-1,024,054	2,045,577	100.0

* 주: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금액, 기여도는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KITA.net

3. 칠레 수입시장의 경쟁 현황

□ 칠레는 현재 세계에서 FTA로 대표되는 양자 협정 추진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서, 현재 56개국과의 관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발효했고 우리의 주요 경쟁상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과도 FTA를 발효한 상태임

○ 칠레는 우리나라와는 2004년 4월, 미국과는 2004년 1월, 중국과는 2006년 10월, 일본과는 2007년 9월 FTA를 발효했음

○ 현재 칠레 전체 교역의 88.9%가 FTA 발효국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교역이 관세인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

< 칠레의 FTA 추진현황 >

건수	국가수	국가명
23	56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MERCOSUR*, 쿠바, 인도, 캐나다, CACM*, EU, 미국, 한국, EFTA*, TPP P4*, 중국, 일본, 파나마, 호주

* 주: 2009년 말 누계

* 자료: 한국무역협회

*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

* 중미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5개국으로 구성, 칠레-CACM FTA는 코스타리카('02.2), 엘살바도르('02.6), 온두라스('08.7) 등 3개국만이 발효했고, 과테말라는 공식서명('07.12)을 마친 상태며, 니카라과와는 협상중임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 TPP P4: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EP; Comprehensive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일반적으로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sia-Pacific FTA로 불리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등 태평양 연안 4개국이 참여한다고 해서 P4 협정이라고도 불림

□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발효 이전인 2003년 2.98%에 머물렀으나 발효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7년 7.23%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중-칠레 FTA(2006년), 일-칠레 FTA(2007년)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여 2009년 5.62%를 기록

○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FTA의 영향으로 점유율이 2008년 전년 대비 1.63%p나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소폭 상승하여 거의 횡보세를 나타냄

- 일본은 2004년 이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지만 2007 FTA 발효를 계기로 증가세로 전환, 2008년에는 점유율이 1.0%p나 상승했으나 2009년 재차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냄
- 중국은 FTA 발효 이전부터 칠레 수입 시장 점유율을 큰폭으로 늘려왔으며 FTA 이후로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 점유율을 4.75%p나 늘리며 현재는 칠레 수입시장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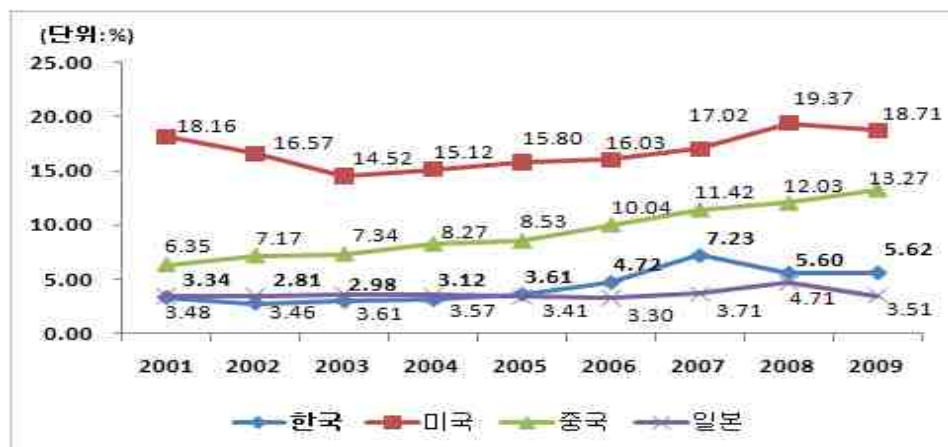
< 칠레 수입시장의 국별 점유율 >

(단위: %)

국가	2003 (A)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B)	한국발효 이후증감 (B)-(A)	각국발효 이후증감 (B)-(C)
한국 (04년4월발효)	2.98 (C)	3.12	3.61	4.72	7.23	5.60	5.62	2.64	2.64
미국 (04년1월발효)	14.52 (C)	15.12	15.80	16.03	17.02	19.37	18.71	4.19	4.19
중국 (06년10월발효)	7.34	8.27	8.53 (C)	10.04	11.42	12.03	13.27	5.93	4.75
일본 (07년9월발효)	3.61	3.57	3.41	3.30 (C)	3.71	4.71	3.51	-0.10	0.21
아르헨티나	21.34	18.55	16.13	12.96	10.14	8.87	11.93	-9.41	
브라질	11.84	12.44	12.66	12.19	10.53	9.34	7.39	-4.44	
독일	4.07	3.70	3.95	3.58	3.65	3.35	3.95	-0.12	
콜롬비아	1.16	1.32	1.16	1.05	2.06	3.77	3.53	2.37	
멕시코	2.88	2.77	2.56	2.88	3.15	3.10	3.07	0.19	
영국	1.03	0.97	0.89	0.85	0.86	0.84	2.68	1.65	

* 자료: WTA

< 칠레 수입시장 내 한·중·일·미 4개국의 점유율 변화 >



* 자료: WTA

- 칠레의 對한국 수입은 발효 이후 6년간 연평균 27.4% 증가하며, 칠레의 對세계 수입 증가율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동 기간 주요국 보다 높은 연평균 증가세를 보였으나, 중-칠레 FTA 이후 4년간, 일-칠레 FTA 이후 3년간은 연평균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됨
- 2004년 함께 발효된 바 있는 미-칠레 FTA 이후, 칠레의 6년간 對미국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19.5%를 기록했으나 동 기간 對한국 수입 증가율이 미국 수입증가율을 상회
 - 2006년 중-칠레 FTA 발효 이후 4년간 칠레의 對중국, 對한국 수입 증가율은 19.0%로 비슷한 수준을 이뤘으나, 2007년 이후 3년간 칠레의 對한국 수입 증가율이 연간 9.6%에 그친 반면 對중국 수입 증가는 연간 13.5%의 증가세를 기록
 - 2007년 일-칠레 FTA 발효 이후 3년간 칠레의 對일본 수입은 연간 5.5% 증가하는데 그쳤고, 칠레의 對한국 수입은 이를 상회함

〈 칠레 수입의 주요국 증가율 비교 〉

(단위: %, 전년대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6년간 (04-09)	4년간 (06-09)	3년간 (07-09)
對세계	31.6	33.3	16.7	22.9	32.2	-32.0	14.6	6.6	3.4
對한국 (04년4월 발효)	37.7	54.5	52.5	88.2	2.4	-31.7	27.4	19.0	9.6
對중국 (06년10월 발효)	48.3	37.5	37.3	39.9	39.3	-25.0	26.5	19.0	13.5
對일본 (07년9월 발효)	30.2	27.6	12.7	38.3	67.7	-49.4	12.3	7.3	5.5
對미국 (04년1월 발효)	37.0	39.4	18.3	30.5	50.5	-34.3	19.5	11.1	8.9

* 주: 음영은 발효 이후의 증가율 변화

* 자료: WTA

- 주력 수출품목이 미국, 중국, 일본과 상당 부분 경합함에 따라 한국 제품의 칠레 시장 점유율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경쟁국 제품에 의해 잠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경유는 발효 이후 수입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한국産이 점유율 44.8%를 기록하며 칠레의 경유 수입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 일-칠레 FTA 발효 및 미국産과의 경쟁 심화로 시장 점유율이 큰폭으로 감소함

< 칠레 경유 수입 시장의 주요국 점유율 비교 >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23.8	11.1	13.7	28.8	44.8	22.0	23.6
미국	20.3	48.9	73.9	56.2	37.0	56.9	60.7
일본	0.0	0.0	0.0	1.1	5.7	13.7	10.2
아르헨티나	27.7	24.1	6.6	4.5	2.1	1.6	1.6

* 주: 품목 분류에 따라 점유율은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WTA

- o 자동차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수입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일본을 제치고 칠레의 자동차 수입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고, 2008년 일-칠레 FTA의 영향으로 일본에 1위를 내주며 다소 주춤했으나 2009년 재차 일본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함

< 칠레 자동차 수입 시장의 주요국 점유율 비교>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16.1	19.8	23.3	26.2	29.3	27.4	36.7
일본	29.5	29.4	29.5	27.6	27.8	30.7	26.3
미국	5.6	5.4	5.9	6.7	7.0	7.5	8.5
독일	2.6	3.7	4.8	5.5	6.4	6.0	7.5
멕시코	2.4	3.3	3.7	4.6	4.0	3.4	7.1

* 주: 품목 분류에 따라 점유율은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WTA

- o 컬러 TV의 경우도 발효 이후 수입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중-칠레 FTA로 인해 수입 시장 점유율이 횡보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이 중국産 TV가 수입 시장을 절반 가까이 잠식함

< 칠레 컬러 TV 수입 시장의 주요국 점유율 비교 >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	7.3	9.5	11.0	12.4	8.8	12.2	11.5
중국	12.8	22.4	25.7	28.2	48.5	47.8	49.8
멕시코	43.3	45.2	46.8	46.1	29.8	29.3	32.4
미국	2.6	2.1	2.2	1.7	3.9	4.1	2.0
일본	6.5	5.7	3.7	1.8	1.1	0.7	0.5

* 주: 품목 분류에 따라 점유율은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WTA

4. 2010년 수출 조건 개선 품목

- 우리의 對칠레 수출품목 가운데 그 간 관세가 유지되었던 290개 품목의 관세가 발효 6년차인 2010년부터 인하되기 시작해 2017년까지 완전히 철폐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수출 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FTA 협상 당시 양허 스케줄이 ‘13년 철폐’에 분류되었던 이들 290개 품목은 FTA 발효 이후에도 2009년까지 관세가 유지되었으며 2010년부터 8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됨

< 수출 조건 개선 품목의 관세 변화 >

(단위: %)

	발효전	200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관세철폐)
관세율	6.0	6.0	5.3	4.5	3.8	3.0	2.3	1.5	0.8	0.0

- 동 290개 품목 가운데 현재 관세 인하 없이도 對칠레 수출이 연간 약 백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타이어, 편직물, 도금강판, 가열난방기, 화학기계, 산업기계 부품, 밸브 등 9개 품목이 2010년부터 관세인하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수출 증가 전망 9개 품목 >

(단위: 천달러)

품목 구분		HS CODE	칠레의 對한국 수입		
			2007	2008	2009
타이어	승용차용 타이어	4011.10.00	3,513	4,634	2,757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	4011.20.00	9,507	11,528	11,862
섬유	편직물	6004.10.00	876	1,063	950
철강	도금강판	7210.61.00	15,822	31,061	7,207
일반 기계	가열난방기구	7321.82.00	32	1,231	1,168
	화학기계	8419.89.90	333	5,941	2,524
	화학기계 부품	8419.90.00	63	7,183	6,069
	산업용 기계 부품	8421.99.00	172	7,089	1,993
	밸브	8481.80.99	2,723	8,767	5,662

* 주: 칠레 HS 8단위 290개 품목 가운데 관세인하 없이도 연간 수출 실적이 약 백만 달러 이상을 기록중인 품목

* 자료: WTA

- 이외에도 290개 품목 가운데는 타이어, 철강, 섬유, 의류, 자동차 부품, 전기부분품, 고무제품, 조명기기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음

〈 수출 조건 개선 290개 품목〉

품목구분	품목수
타이어(승용차, 버스, 건설, 광산, 농업, 임업용 차량)	7
철강제품	37
섬유제품(직물, 나일론, 인공섬유 등)	37
의류제품(티셔츠, 스웨터, 스포츠 용품, 양말, 신발 등)	138
일부 자동차(앰볼런스, 경트럭 등)	10
자동차 부품	7
비철금속 제품(동, 알루미늄 등)	4
일반 기계류(화학기계, 섬유기계, 밸브 등)	13
전기부분품	8
자전거 및 부품	4
화물용 선박 등	7
고무장갑(가정용, 수술용 등)을 비롯한 고무제품	5
가구	4
조명기기	4
조립식건물	4
기타화학제품	1
소계	290

* 주1: 칠레 HS 8단위 290개 품목

* 주2: 품목분류에 품목수는 달라질 수 있음

5. 對칠레 수출의 생산·고용유발 효과

- 한-칠레 FTA로 인한 수출 증가는 국내 생산 및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발효 6년차인 2009년 현재 발효 이전과 비교하여 생산유발은 3.4배, 부가가치는 2.9배, 취업유발인원은 3.9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FTA 발효 전인 2003년 對칠레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액은 13.2억 달러였으나 발효 6년차인 2009년에는 44.9억 달러로 3.4배 증가
 - 對칠레 수출에 의해 유발된 부가가치는 2003년 4.3억달러에서 2009년 12.5억 달러로 2.9배 증가
 - 對칠레 수출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은 2003년 6,041명에서 2009년 23,708명으로 3.9배 증가

< 한-칠레 FTA로 인한 산업연관 효과 >

구 분		발효 전 1년 2003년	발효 6년차 2009년
생산유발효과	총 수출액(a, 백만 달러)	517	2,229
	생산유발액(b, 백만 달러)	1,320	4,488
부가가치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액(c, 백만 달러)	425	1,245
취업유발효과	취업유발인원(d, 명)	,6,041	23,708

※ 산업연관효과 분석방법: FTA 체결 전인 2003년과 체결 후인 2007년의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한-칠레 FTA에 의한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를 도출하여 비교함

6. 한-칠레 투자동향 및 인적교류

□ 한국의 對칠레 투자는 90년대까지 동광 개발 관련 투자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FTA에 대한 기대효과로 발효 직전인 2003년부터 對칠레 투자가 급증하였으며 투자 범위도 광업 위주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04년 이후 한국의 對칠레 투자 분야는 목재, 의료기기, 육류 및 수산물 가공업 등의 제조업과 도소매·서비스 등으로 투자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칠레 직접투자 추이 >

(단위: 천 달러, 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건수	1	0	3	3	5	6	11	2	5
금액	63	0	15,300	1,782	3,306	4,548	29,980	2,690	6,052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신고기준)

□ 칠레의 對한국 투자는 FTA 발효 이전 전무했다가, 발효 이후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전체적으로 미미한 수준임

- 칠레의 對한국 투자 8건은 모두 서비스업인 것으로 파악됨

< 칠레의 對한국 직접투자 추이 >

(단위: 천 달러, 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건수	0	0	0	1	2	1	0	0	4
금액	0	0	0	44	7,289	185	0	0	1,130

*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 통계(신고기준)

□ FTA 체결 이후 교역, 투자 확대에 의해 양국간의 인적교류가 확대 추세에 있으나 아직 활발한 수준은 아님

< 양국 인적교류 현황 >

(단위: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칠레→한국	1,164	1,796	1,391	2,274	1,912	1,703	1,857	1,842	1,735
한국→칠레	2,761	2,765	4,291	6,181	5,951	7,333	7,750	8,066	-

* 자료: 한국관광공사, 칠레 통계청

7. 한-칠레 FTA 6년 종합평가

(1) 2009년 교역규모가 감소했으나, 6년간 종합 실적은 對세계 실적 크게 상회

- 2009년 칠레 수입 시장의 급격한 축소로 교역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6년간 對칠레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27.6%를 기록하며 동 기간 對세계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 11.1%를 상회
- 2009년 對칠레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으나, 이는 칠레 수입 시장의 급격한 축소에 기인한 것이어서 칠레 수입시장의 한국產 비중은 오히려 전년대비 0.02%p 소폭 상승한 5.62%를 기록
- 협정 발효 초기 확대되었던 무역수지 적자는 점차 축소되고 있어 2006년 -22.5억 달러를 기록했던 무역수지 적자가 2007년에 절반 이상 줄어 -10.9억 달러를 기록했고 2009년 -8.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지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음

(2) 양국 시장에서 두 나라 모두 점유율 상승

- 칠레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전 2.98%에서 2009년 5.62%로 늘어났고, 한국 수입 시장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발효전 0.59%에서 0.96%로 늘어나는 등 한-칠레 FTA는 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3) 6년간 칠레의 평균 관세율 5.31% 하락, 자유화율(관세가 0%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75.3%p 증가

- 발효 전 6.00%에 달했던 칠레의 對한국 평균 관세율은 발효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5.31% 감소하여 0.69%까지 낮아졌고, 발효 전 0.44%에 그쳤던 자유화율은 지난 6년간 75.30%p 높아진 75.74%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한-칠레 FTA로 칠레 시장의 관세 장벽이 거의 사라짐

(4) 경쟁국 FTA 발효로 한-칠레 FTA를 통한 시장 선점 효과 감퇴

- 발효 이전 2.98%에 그쳤던 한국의 對칠레 시장 점유율은 한-칠레

FTA 효과로 2007년 7.23%까지 상승했으나, 2006년 10월 중-칠레 FTA 발효, 2007년 9월 일-칠레 FTA 발효 등 경쟁국의 FTA 발효로 점유율이 2009년 5.62%로 하락함

- 중-칠레 FTA 발효로 발효 이전 8.53%였던 칠레 수입 시장의 중국 점유율이 2009년 13.27%까지 확대했고, 일-칠레 FTA 발효로 칠레 수입 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등 경쟁국의 FTA 발효로 시장 선점효과가 감퇴하는 것으로 나타남

(5) 한국의 對칠레 투자는 활발하나, 칠레의 對한국 투자와 양국간 인적교류는 아직 미미한 편

- 한-칠레 FTA 발효 전후 한동안 주춤했던 한국의 對칠레 투자가 보다 활발해졌고 투자 분야도 광업에서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다양해졌으나, 칠레의 對한국 투자는 미미한 수준임
- 2004년 이후 양국간 인적교류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인적교류가 활발한 수준은 아님

(6) 2010년 일부 품목 관세인하 개시, 추가적인 수출 증가 기대

- 2004년 발효 이후 2009년까지 관세가 인하되지 않고 있던 290개 품목의 관세 인하가 2010년부터 시작되어, 이들 품목의 수출 조건이 개선됨
- 이 가운데 타이어, 편직물, 도금강판, 일반기계류 등 9개 품목은 그간 관세 인하 없이도 對칠레 수출이 활발했던 품목으로, 관세인하의 실질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출 증가가 기대됨

8. 향후 전망 및 대응과제

- 對칠레 교역은 2009년 큰 폭으로 감소한 뒤 2010년 1~2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월말 칠레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칠레 경제 성장률이 1.5%p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분석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금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에 대해 칠레 정부는 GDP 증가율이 1.5%p 둔화, 재난 평가 전문회사인 Ezecat Inc는 GDP 증가율이 1.0% 둔화될 것으로 각각 전망
 - 부문별 피해 규모와 관련해서 리서치 펌인 IM trust는 주택손실 25억 달러, 산업 및 상업 기반 손실 15억 달러, 항만, 고속도로 등 인프라 손실 20억 달러, 기계류 손실 5억 달러, 재고류 손실 5억 달러 규모로 평가
- 칠레의 신정부가 피해 복구와 재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건 사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금번 지진이 對칠레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음
- 수입과 관련하여, 동(銅) 수입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났으나, 펄프와 와인의 경우 수입 가격 상승과 수입 축소가 우려됨
 - 세계 최대 동 생산기업인 코델코社は 금번 지진으로 항구 손실, 전기 공급 중단 등 다소 손실이 있었지만 자사가 운영중인 광산 운영이 정상화되어 동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힘
 - 국내 펄프 공급의 약 30%를 차지하는 칠레의 펄프 제조 회사인 아라우코(Arauco)와 CMPC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 펄프가격 상승과 수입 공백이 우려됨
 - 쿠리코, 마울레, 카차포알밸리 등 금번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70%가 와인 생산지역으로, 칠레産 와인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업체는 2010년 관세인하가 시작되는 290개 품목이 자사의 취급품목이 아닌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수출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세인하 이전에도 對칠레 수출 규모가 상당했던 타이어, 편직물, 도금강판, 가열난방기, 화학기계 및 부분품, 산업기계 부품, 벨브 등의 생산 업체는 관세 인하 효과가 직접적인 만큼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현재 對칠레 수출 규모가 미미한 품목 가운데에도 관세 인하를 對칠레 시장 공략에 적극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칠레측과 한-칠레 FTA 양허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한-칠레 FTA를 바탕으로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야할 것임
 - 정부는 한-칠레 FTA 이행 점검을 위해 개최되는 자유무역위원회를 통해 냉장고, 세탁기 등 양허제외 품목과 중-칠레 FTA, 일-칠레 FTA 이후 칠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철강 등의 품목의 양허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칠레 시장에서 FTA 선점효과가 제한적임을 확인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남미 최대시장인 MERCOSUR와의 FTA 협상 개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